**‘할 수 없음’의 의미**

**<마가복음 5장 22절 ~ 6장 6절>**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없음’의 순간을 만납니다.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공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왜 그걸 해야 하지, 앞으로 나아갈 의욕 자체를 상실한 젊은이에게 공부란 그저 ‘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조절하고, 좋은 약도 챙겨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고 다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건 아니더라구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어느 순간 병석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때, 기어이 더이상 낫거나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적어도 몇 번은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그때를 정확히 예측하고 맞이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순간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찾아올 ‘할 수 없음’의 순간이 되겠지요.

어제 옛 교우로부터 기도 부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26:4)

이 말씀을 보내주고, 잠시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주께 받은 계명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보려 의식적으로 더 노력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의 순간에 더 빨리 이르게 될 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면, 보통 우리는 불행하다 느끼고, 이제 끝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는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의 대표격 인물이니, 나이도 많고, 사회적 명망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찌하여 이 나그네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린 것일까?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죽게 됐는데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아마 의사들을 불러 치료도 다 받아본 뒤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서, 급기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길이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 ‘할 수 없음’의 순간, 그 때가 되니 다른 이들이 나를 어찌 볼까는 더이상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는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언젠가 이어령 선생이 기독교 신자가 된 사연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는 병든 딸이 그 힘든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내며 마침내 치유에 이르는 것을 보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네가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겠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할 수 없음’의 순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존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새삼 뚜렷이 인식하는 기회,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존재와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그 안에서 새로 빚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행17:24—28)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자신을 진정 정확히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우리 모습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우리 인생? 아주 일부만이 우리가 의도하여 행한 일의 결과이고, 사실 대부분은 우리에게 발생한 일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의 자아로서 행동하기 전에, 나는 하나의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우린 이미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또 때로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 존재는 사실 보다 근본적인 수동성(Passivity)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아 지금 여기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진실에 직면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 자신의 ‘할 수 없음’과 마주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한 여인이 조용히 그 무리 사이에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인,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디선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리 행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 자신에게서 발원한 것일까? 그녀의 그 절박함에서 기원한 것일까? 모든 절박한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요. 믿음은 한 사람 안에서 발원하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현 상황을 바꿀 만한 인간 안에 어떤 능력(capacity)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든 일어날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possibility)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할 수 없음’이 이 하나님의 ‘할 수 있음’에 자리를 내준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것이 무리들 사이에서의 의미없는 부딪힘이었을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의미없는 부딪힘과 의미있는 접촉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가던 길을 가야할 때와, 바로 멈춰서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십니다. 결국 그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 추궁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강조점을 두십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구원이 그녀의 탁월한 행동의 결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도, 예수님을 통한 치유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발원한 것임을 알려 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또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당사자에게 그것은 절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녀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사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믿음이 발휘된 결과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 진전되길 바라신다는 싸인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분의 고향 마을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대단한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할 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처럼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분이 가르치실 때, 그 지혜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는 전부터 알던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의 동생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평범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야일 수 없고, 구원하는 능력이 그의 속에서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생각이 이런 식으로 뻗어가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인간에 관한 두 가지 함정… 하나는, 인간을 실재보다 너무 높여 보고, 그 능력의 한계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인간을 실재보다 너무 낮춰 보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답답해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제발 좀 뭐라도 하시지…*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을 때,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지 않으실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5:19)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5:3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6:37)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8:42)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이 근본적인 수동성(Passivity),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나름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근거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가능성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4:1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오해하며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자족하며 감당하리라는 고백이지요. ‘믿는다’는 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 내 결핍과 욕망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 ‘나의 할 수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아직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소식을 전합니다.그의 딸이 그 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예수님과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저 사람이 끼어들어서…*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저 사람만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그럼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인가? ... 하지만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고, 이제 모든 게 부질없다 여겼고, 그럼에도 다 늦게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아마 야이로만은 아직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놀라운 사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일으키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걷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예상했을까? 누가 이 일을 기대했을까? 사실 이건 야이로가 처음에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 그가 불행이라 생각했던 앞의 모든 상황들을 삼켜버리며,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할 수 없음’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은 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의 더 심각한 상황 속으로 그를 몰아넣으시고는, 그를 다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욕망하게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심지어 기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이제 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신뢰하며 따라갈 때, 구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임하고, 그 길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시각장애인이시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껌팔이도 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다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 신학공부를 그만두려 했는데, 여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 목사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지만 얘길 들어보니 그 이후로도 그분 인생엔 고난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얼마 전엔 어이없게도 아들이 개에 물려서,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꽤 담담하게 하시고, 때로는 유머를 곁들여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많다면서, 요즘엔 정말 감사하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정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왜 내 인생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가를 생각하면, 이제껏 내가 하나님께 받아온 대접은 불평할 것이 못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시절이 없습니다… 아마 나보다 고난을 적게 겪으며 사는 분들도 저마다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아닐까요? 장애를 가진 딸아이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이 아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안 고쳐 주실 거에요?”… 하나님께 투정부리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더라구요. “하나님 이 아이 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린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문득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는 ‘할 수 없음’의 순간, 그것은 우리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의 최대치가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